

광양 ‘밝은별 아트살롱’ 시민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서
3월~6월 셋째 주 토요일 공연
강연·공연 어우러진 살롱 형식
시민 참여 유도… 예술 거점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지난 3월부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에서 예술과 공연이 어우러진 ‘밝은별 아트살롱’을 개최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살롱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와 공연자를 초청해 시민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첫 번째 아트살롱은 ‘새로운 길’을 주제로, 음악인이자 음식연구가인 일본인 나카(Nacca)가 강연자로



광양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트살롱’ 공연 모습.

광양시 제공

나서 ‘생태’, ‘비전’, 그리고 일본인으로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진 명상음악 연주가 붉은별, 싱어송라이터 이내의 공연은 관사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4월에는 ‘지금 시작하기 좋은 건축 이야기’를 주제로, 복합문화공간 인서리공원 설계자이자 한옥 건축가인 김원전(잡우리건축 대표)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대표는 “집은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양에 600여 채의 한옥이 남아있는 것

은 축복이다. 잘 보존해 가치 높은 문화유산으로 남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연에는 아코디언과 아일리시 휘슬을 연주한 김경호, 젊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싱어송라이터 김성준이 참여해 신해철의 ‘그대에게’,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등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했다.

6월 마무리되는 아트살롱은 오는 17일에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박정숙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다큐멘터리와 지역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6월21일에는 광양시립국악단의 류형선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K-국악’을 주제로 특별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밝은별 아트살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광양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www.gyculture.or.kr), 전화(061-761-0701) 및 방문(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2, 2층) 문의, 인스타그램 계정(@gycc202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예술 무대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디지털시민증·고향사랑기부 연계 이벤트

발급·기부 시 자동 응모
선착순 30명 커피 쿠폰

전라남도 광양시가 디지털 종합 행정 플랫폼인 모바일 앱 ‘MY광양’ 출시를 기념해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을 독려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 이벤트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MY광양’ 앱을 통해 디지털 광양시민증을 발급받고, 광양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자동 응모된다.

‘디지털 광양시민증’은 광양 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광양시에 애정을 가진 누구나 앱 회원가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민증 발급 시 시정 소식, 관광 정보, 협약된 할인가맹점의 할인 및 서비스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3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6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특정 광양시 총무과장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는 관계인구 형성을 통해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와 마찬가지로 광양 외 지역 거주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이번 연계 이벤트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복지플랫폼 2.0의 핵심 사업인 ‘MY광양’ 앱은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발된 통합 행정·복지 플랫폼이다. 맞춤형 복지정책 검색(500개 이상),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 시설·강좌 통합 예약, 생활정보 제공, 설문조사 및 민원 신청,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시는 오는 2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농업인 크리에이터 교육생 모집… 라이브커머스반 등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농업인 크리에이터 교육’ 1기 과정에 참여할 라이브커머스반과 팜파티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홍보하고, 온라인 유통 역량을 키워 광양시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교육과정은 연 2회,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 중 1기 과정인 라이브커머스반과 팜파티반 교육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라이브커머스반은 6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 팜파티반은 6월5일부터 7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 운영된다. 교육은 지난해 7월 준공된 창농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라이브커머스반 12명, 팜파티반 25명이며 광양시민 누구나(사업자등록자 포함)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난해 광양시 농업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디지털 콘텐츠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양시는 과정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3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2일 광양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라크라메 공예 체험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호응

전라남도 광양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140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년도 미참여자 중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미흡한 이용자,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 이용자 모니터링과 생활지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확인이 가능한 자, 자발적인 학습

의지를 가진 어르신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정신 기능, 학습욕구,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 라크라메 공예, 한식 디저트 만들기, 목공예, 천 공예, 캔들 공예, 키오스크 교육 등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3명 모집 …22일까지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22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봉강면 10명, 옥룡면 12명, 진상면 14명, 다압면 5명, 태인동 2명이다.

선발된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 피서 기간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백운산 4대 계곡과 배알도 수변공원 등 광양시 관

내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배치돼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여름철 야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관련 근무 경력자 또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인 오

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 근무지의 관할 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는 서류 심사 후 면접 전형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요원 채용 후 광양소방서와 협력해 응급처치법과 안전용품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안영준 기자